

第29回 CIGRE 大会報告

韓國 CIGRE 國內委員會

■ 차

■ 레

1. 概要

2. CIGRE 大會 活動報告

3. CIGRE 活動을 위한 問題點과 對策

부 록

1. 概要

第 29 回 CIGRE 大會가 1982 年 9 月 1 일부터 9 月 9 일까지 9 日間に 걸쳐 파리의 ASSAS 大學에서 開催되었다. 지난 1980 年の 第 28 回大會에서 우리나라가 正規會員國으로 加入된 이후 두번째로 참가하는大會로서 梁興錫 國內委員長을 비롯하여 韓電, 曉星, 金星電線, 大韓電線 등 각 機關에서 총 10 名이 함께 參席하게 되었다.*註1)

今年大會에도 70 개국으로부터 2,500 名 이상의會員이 참가해서 盛況을 이루었으며 連日 進지한 討論과 交歡이 進行되었다. 참고로 表 1 에 大會提出論文, 表 2 에 이번 大會日程을 소개한다.

大會가 파리에서 開催되는 것이니만큼 歐美各國에서 많이 참가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세아 지역에서도 우선 일본이 54 名 參석하였고 中공에서도 10

명내외 그리고 자유중국에서도 처음으로 대만전력중역 및 부장급으로 3 名이 參석하였다. 또 모처럼의 국제무대이어서 나라에 따라서는 PR 에 열을 올리는 데도 없지 않는데 특히 이번에는 브라질에서 많은 사진전시와 개회식에 이은 特別講演에서 브라질의 장기수력발전계획을 브라질電力會社社長이 직접나와서 강연까지 해서 그들의 의욕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중 자기나라의 크기를 소개하는데 구라파전부활 집어 넣어도 아직 1/3 정도 여백이 남는다는 자기나라 地圖를 보였던 것이 아주 印象的이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10 名이 참가하였으므로 大會期間중 개최된 각 部會 (Gr) 를 각자 分擔해서 出席할 수 있었으며, 또 일부 研究委員會 (SC) 에도 참가해서 最新 電力技術의 흐름과 앞으로의 展望 등에 대하여 실로 有益한 情報과 資料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이하 간단히 이들의 要點을 보고 하기로 한다.

2. CIGRE 大會 活動報告

表 1 에 보인바와 같이 현재 CIGRE 에는 15 개 分科委員會가 있으며 이것이 研究活動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번 大會에서 發表된 論文은 총 201 편으로서 지난 大會에서의 167 편보다 34 편이 더 많은 것이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國內委員會에서 活動을 서둘러 지난 7 月初에 提出된 論文전체를 入手하고 그 내용을 要約해서 번역한 論文抄錄集을 8 月初에 發刊하여 參席 豫定會員은 물론 國內委員會 會員전체에게 配布하여

*註 1 : 1982 年度 第 29 回 CIGRE 大會 參加代表名單 (無順)

1. 梁興錫 (서울대工大教授 CIGRE 韓國委員長)
2. 宋吉永 (高麗대工大教授 CIGRE 韓國委幹事)
3. 金基秀 (曉星重工業 專務理事)
4. 鮮于學永 (東一電機企業社 代表)
5. 朴元根 (金星電線 專務理事)
6. 卞先浩 (金星電線 本部長)
7. 李清龍 (大韓電線 理事)
8. 金正勳 (大韓電線 次長)
9. 金周鎬 (韓電 送變電部 次長)
10. 李殷敬 (韓電 系統計劃課長)

表 1. 部會 (Group) 및 提出論文 數

Group 번호	분 야	제출보고서 수
Gr. 11	Rotating Machines	15
Gr. 12	Transformers	15
Gr. 13	Switching Equipment	15
Gr. 14	HVDC Links	8
Gr. 15	Insulating Materials	15
Gr. 21	HV Insulated Cables	12
Gr. 22	Overhead Lines	12
Gr. 23	Substations	12
Gr. 31	System Planning	16
Gr. 32	System Operation and Control	26
Gr. 33	Overvoltages and Insulation Coordination	13
Gr. 34	Protection	11
Gr. 35	Communication	11
Gr. 36	Interference	11
Gr. 41	Future of Electric Power Transmission and Systems	9
합 계	15	201

가능한 나름대로의 事前準備를 끝낼 수 있었다. 특히 이 論文抄錄集發刊은 이번엔 처음 시도된 作業이었으나 우선 大會 참가에 앞서 미리 發表內容의 概況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또 이에 따라 각자가 더 구체적인 討議內容까지를 준비할 수 있어서 아주 有效 적절한 事前準備의 철저를 기할 수 있었다고 自負하는 바이다.

Group12 (변압기) 의 토의는 300 명이 넘는 전문가가 모여서 당초 선정한 우선주제인

가) EHV 와 UHV 변압기와 리액터

나) 변압기의 진단법 및 예방保全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전자는 주로 대용량변압기의 개발동향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중 gas 와 gas-vapor 絶緣 시스템에 논의가 집중되었다. 이것은 현재의 paper-oil 시스템을

代置하자는 것으로서 중요한 개발 동기는 현재의 변압기油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을 제거하는데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상업적으로 試作品을 제작한바 있으며 변압기 용량을 더 증대시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압축된 SF₆ 가스를 이용하여 변압기가 勵磁되지 않을때나 加壓되는 동안 絶緣耐力을 유지하게 된다. 변압기에 부하가 걸리면 철심과 권선에 액체 불화탄소 (liquid fluorocarbon) 를 분산시켜 이것이 氣化할때 냉각되고 또한 絶緣耐力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1200KV級 가스絶緣변전소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同級 변압기의 SF₆ 가스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이밖에 연구구름 WG 06 은 全負荷운전시 대용량 변압기의 信賴度문제를 특별히 다루어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바 이는 정격전류운전시의 온도상승시험 및 시험전후와 시험중에 있어서의 절연유의 불용해 가스량측정 등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변압기의 용량을 증대시킬 경향은 없고 信賴性 향상과 손실감소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용량변압기의 새로운 기술, 즉 gas 와 gas-vapor 絶緣, 新磁性材料, 低溫技術 및 근본적인 絶緣기술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주제 2에 대해서는 변압기 이용자의 공헌으로 변압기제작자는 설계와 시험시에 운전경험, 정비기술, 현지에서의 진단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3가지 新技術을 들수 있다. 즉 gas-in-oil 分析, 部分放電검출, hot spot 溫度측정 등이다.

가) gas-in-oil 分析

과거 수년간 gas-in-oil 분석방법이 有用되어왔는데 가스추출기술과 크로마토그래픽분석기술에 많은 진전을 보여왔다. 현재 오일 샘플 1ℓ에 용해되어있는 水素와 炭化水素가스의 최소검출가능치는 2ppm 과 0.1ppm 이다.

나) 부분방전검출

이 부분의 어려운점은 선로의 코로나 현상과 변압기의 진동문제인데 이것도 여러 端子에서 동시에 측정하므로 현장에서 완벽히 검출할 수 있고 그 위치도 알 수 있다.

다) Hot spot 溫度측정

최근에는 optical fiber 를 이용하여 측정방법이나 계산방법을 실용화 할 수 있게 되고 있다. WG 12-05가 최근에 실시하였던 13개국 47,000 대의 변압기중에서 사고가 발생한 1000 건의 사고예를 분석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그 결과를 Electra誌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表 2. 1982 CIGRE 大會 日程表

1982. 9.1 ~ 9. 9 ASSAS (PARIS)

内容 日程	午 前			午 後		
	講 堂	第 1 會議室	第 2 會議室	講 堂	第 1 會議室	第 2 會議室
9. 1 (水)	-	-	-	開 會 式 3:00	-	-
9. 2 (木)	Gr 41 未 來 系 統	Gr 35 通 信	-	Gr 41 未 來 系 統	Gr 35 通 信	-
9. 3 (金)	Gr 32 系 統 運 用	Gr 21 케 이 블	-	Gr 32 系 統 運 用	Gr 21 케 이 블	-
現場見學 TV1 TV2 TV3						
9. 4 (土)	Gr 31 系 統 計 劃	Gr 34 保 護	Gr 12 變 壓 器	Gr 31 系 統 計 劃	Gr 34 保 護	Gr 12 變 壓 器
9. 5 (日)	觀 光 旅 行					
9. 6 (月)	Gr 33 絕 緣 協 調	Gr 15 絕 緣 材 料	-	Gr 33 絕 緣 協 調	Gr 15 絕 緣 材 料	-
現場見學 TV3 TV4						
9. 7 (火)	Gr 13 開 閉 裝 置	Gr 36 干 涉	-	Gr 13 開 閉 裝 置	Gr 36 干 涉	-
5:30 ~ 總會 (第 2 會議室)						
9. 8 (水)	Gr 23 變 電 所	Gr 11 回 轉 機	-	Gr 23 變 電 所	Gr 11 回 轉 機	-
現場見學 및 觀光 TV6 TV6						
9. 9 (木)	Gr 14 D C 系 統	Gr 22 架 空 電 線	-	Gr 14 D C 系 統	Gr 22 架 空 電 線	-
宴 會	9. 2 (木)	佛蘭西 CIGRE 國內委員會 招請 Party (PM 8:00 ~)				
	9. 7 (火)	CIGRE 本部 招請 Party (PM 9:00 ~)				

Group 13 (開閉裝置)의 토의에는 電力系統에 의하여 요구되는 전기적, 기계적 강도 (stress) 와 관련된 기기의 구조, 원리, 재질 등 제작상의 기술과 시험 방법, 그리고 단락회로의 최대전류와 지속전류를 제한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전력계통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락시의 전류제한에 관련된 기술적인 해석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우리제통의 장기계획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는 Group 14 (HVDC link)의 토의에 있어서는 美國 서부의 多端子系統, 英一佛間 海

峽형단의 2000 MW link (14회선) 등 AC-DC복합계 통구성문제를 비롯하여 直流송전에 관한 운전 및 信頼度진단과 AC-DC變換장치에 관한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어느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인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아직 多端子 DClink 적용상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이부문의 국제적인 개발연구의 관심도가 지대하므로 우리의 장래 幹線系統구성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短路電流上昇과 無效電力 유통에 대한 해결책이

이 분야에서 나올 가능성이 기대되므로 계속하여 이 분야의 연구개발추이를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 최근의 眞空차단기의 개발동향을 본다면 일본에서는 40 MVA 까지의 Capacitor 나 Shunt reactor bank의 開閉用으로 13.8KV, 100 KA의 대용량, 多動作진공차단기를 개발하고 있다.

36KV까지의 중간전압용 차단기 (OCB)나 공기차단기 (ABB)의 代置用으로 진공차단기 (VCB)의 需要가 증가되고 있으며 1979년에는 드디어 VCB의 占有率이 50%를 上廻하고 있다.(그림 7 참조) VCB의 수요증가 요인은 우수한 차단성능, 長壽命, 보수간단, 응용분야가 넓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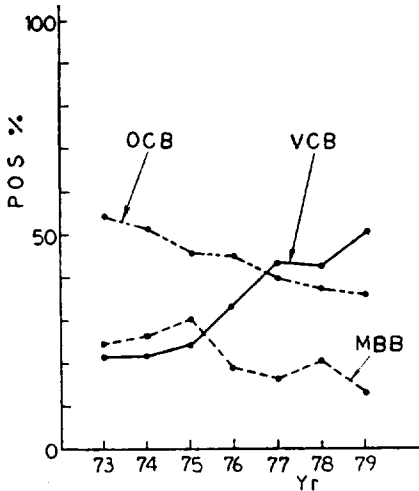


그림 1. 36KV까지의 中間電壓차단기의 生産指數

Group 21 (HV Cable)의 토의에서는 (가) 直流케이블과 海底케이블의 기계적양상 (나) 합성수지 절연케이블과 그 부속품 (다) 전통적인 기술과 새로운 기술에 둘다 사용되는 중부하 전송을 위한 전력케이블의 3개 主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중(가) 項에 대해서는 여러 발표자들이 DC 케이블의 실제 operating stress가 35KV/mm보다 더욱 증대될 수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50KV/mm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까지 나왔다. 또한 海底케이블은 漁船이나 anchor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埋設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데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 美國의 1979 ~ 81년사이의 해저케이블 (DC)의 break down 率은 0.04 / 100 Km였다는데 이것을 금후의 Limit (設計)로 삼자는 의견이 많았다. (나) 項의

合成수지절연케이블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i) 수축성 (단 작업방법의 개선으로 개선될 전망이 있음) (ii) 장기간에 걸친 aging 테스트 (운전실적데이터 수집분석중) (iii) 시설후의 시험방법 (DC 테스트는 의미가 적어 oscillating wave 방식의 연구가 진행중이다.)로 요약된다. 한편 현재 전세계에서 110 KV이상의 운전실적데이터를 조사한 Study Committee의 발표에 의하면

- 압출절연가교케이블 : 110KV ~ 138KV sealing end 만의 파괴*는 $\frac{3}{198}$ (회) = 1.52% (* 케이블의 파괴는 없었다)
- 압출절연 LDPE 케이블 : 225KV 마찬가지로 cable에 의한 파괴는 없었고 sealing ends 만의 파괴가 $\frac{3}{384}$ (회) = 0.8% unit · year

- 압출절연 HVPE 케이블 케이블에 의한 파괴는 없었고 straight joint파괴가 압도적이었다.

$$\frac{1}{60} \text{ (회)} = 1.67\% = \frac{\text{파괴한 S.T 건수}}{\text{총설시 straight joint 건수}}$$

* 分母는 unit year로 총 시공한 件數 또는 횟수임

Group 22 (가공선로)의 토의에 있어서는 가공선로의 설계면에서 보다는 전선의 재료와 제작방법의 개발에 중점이 주어졌으며 이 중에서는 특히 미래에 있어서 추구되어야 할 송전용량증대라는 관점에서 UHV 전선에 관한 연구가 눈길을 끌게 하고 있었다.

Group 22 (변전소)의 토의에 있어서는 변전소와 발전소에서 점차 그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미니컴퓨터의 응용을 위한 母線의 표준화등 설계상의 문제 및 SF₆ 절연변전소의 설비축소화를 위한 설계에 있어서의 유지보수 및 안전기준에 입각한 미래의 경향, 그리고 고장대 변전소 수명에 관한 확률적 요인분석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특히 이 분야는 장치 용지 확보면에서 겪어야 할 어려움을 고려할 때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우선주제에 대한 토론결과 및 최근에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는 Study Committee가 수집 정리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Group 31 (계통계획)의 토의에 있어서는 첫째, 부하증가의 불확실성 및 발충변전설비의 건설지연문제에 입각하여 계통의 信賴性, 전력수송의 융통성 및 비용 (자본비, 운전비, 손실비 등의 원가요소)을 감안

한 계통계획방법, 둘째 에너지비용의 상승, 정책적이거나 환경적제약에 따른 기존설비의 비용에 관한 효율증진을 위하여 이미 경험하였거나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법, 셋째 계통구성설의 선택도 제약으로 야기되기쉬운 계통특성상 안정도에서 문제점이 되는 비강쇠진동 (undamped oscillation) 문제등이 우선주제로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한편 나라와 환경에 따라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통용될 계획방법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도출되지 않았으나 전압수준의 단순화 및 합리화의 필요성이 많은 발표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그리고 현재 相差角으로 대표되고 있는 전력계통의 안정도 문제와 전압으로 대표되는 무효전력수급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사람과 컴퓨터가 연동작업을 할 수 있는 interactive simulator 를 사용하므로써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Group 32 (계통운동 및 제어)에서는 優先主題로서

- (가) • 非常條件에서의 전력계통제어
 - 사람과 컴퓨터를 포함한 自動化설비의 임무
 - 중앙집중식과 지역분산식 의사결정과 평가 기준
- (나) • 예측 및 실시간운용을 위한 기능과 이들의 이득에 대한 평가와 이용될 설비
- (다) • 발전소의 운용과 제어
 - 전력계통과 발전소간의 상호작용
 - 전력계통제어에 대한 발전소의 기여

의 3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는데 가장 활발하게 토의가 이루어진 部分의 하나로서 총 51명의 질의와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중 24명은 제1주제에 20명은 제2주제에 그리고 7명이 제3주제를 대상으로 토의하였다.

여기서도 사람과 컴퓨터가 對話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급전설비비용의 불가피성이 특히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급전제어체계는 중앙집중방식뿐만 아니라 지역분산방식으로 階層的 의사결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기준화할 필요가 있음에 토의의 역점이 주어졌다.

이번토의에 있어서는 전력계통의 正常상태 (Normal state) 나 非常상태 (Emergency state) 뿐만 아니라 警戒상태 (Alert state)와 回復상태 (Restorative state) 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정의하고 토의하는 특색을 보였는데 경계상태는 전력계통이 정상상태로부터 하나의 contingency 에 의하여 비상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확률의 분석에측으로 표현되며 이를 바탕

으로 전력계통의 운용은 최적경제운용을 함에 있어서 비상상태轉移의 위험성이 최소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回復상태는 일단 발생된 비상상태에서 정전을 무리하게 완전제거하려다가 더 큰 정전과급을 유도할 위험이 있으므로 회복기간에 일부의 부하제한을 단행하는 것이 전체수용가에 대한 대국적 손실을 줄이는 것이 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본토의에서는 動的인 조건하에서 발전소의 운전상태에 관한 모델의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발전소와 전력계통간의 상호작용연구에 의한 계통의 정전회복시 발전기가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일면을 다루기도 하였다.

Group 34 (계통보호) 의 토의에 있어서는 2개부분으로 나누어 부문 I 은 기술현황과 3개의 우선주제에 대하여, 부문 II 는 보호관계전문가 및 비전문가등이 광범위하게 참여를 독려하는 일반토의로 되어 있었다. 상기 3개주제는 (가) 1차적계통 파라미터의 전송, 수집처리에 관한 새로운방법과 적용의 기본개념, (나) 多端子송전선보호 (다) 대용량터빈발전기의 계통이상조건하에서의 보호 및 제어에 관한 것이었다.

보호기술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대전력 계통계획의 최신행향에 맞추어 비정상상태에서의 계통안정과 보호와 자동화에 관련되는 기술문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하며 micro-electronics, optoelectronics 및 光섬유분야의 기술혁신은 생산원가의 절감 및 성능향상을 가져와 전력기술과 전자기술간의 갭을 메꾸어갈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밖에 solid state 재래식 analog 방식에서 micro-electronics 를 응용한 digital 기술, 마이크로컴퓨터를 응용한 계전기과 보호방식이 보호분야의 오랜 전통을 유지하면서 기기단위로 개발되고 있다고 하였다.

Group 41 (계통수송 및 계통의 장래) 의 토의에 있어서는 그 내용의 전개가 이제까지 쌓아온 기왕의 전력사업설비 및 전력계통기술을 창자 위축 또는 후퇴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느끼게 하리만큼 전기에너지의 貯藏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지게 다루어졌는데 이것은 鹽化亞鉛에 의한 저온 축전지와 황산나트륨에 의한 고온 축전지분야와 가스화플 위한 이른바 chemical reactor 분야의 연구추세와 주요 관련기술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력계통의 장래에 관한 토의사항중 주목을 끌었던 내용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화석연료의 이용기간 연장운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점유 비중이 peak시 60

%, off peak 시 30%까지는 상승될 것인바 이때의 계통안정문제를 생각할때 揚水발전 및 중위 화력배합에 관한 문제의 연구

- 발전용 석탄이용에 관하여는 coal energy의 수송방법으로 Slurry 방식, 초고압송전 방식 및 석탄액화수송방식의 경제성분석 (800km - 400 MW 수송에서 Slurry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었다는 사례보고가 있음)
- 개발국에서의 장래 전력계통계획은 최소비용문제로 귀착되는데 수요와 환경제약의 불확실성하에서 정책과 일반대중의 이해가 지배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므로 이 분야는 어느 특정한 분야의 에너지만의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임.

3. CIGRE 활동을 위한 問題点과 對策

지난 大會에는 國內委員會에서 2명밖에 참가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는 대거 10명이나 참가하게 되어 大會期間中의 여러가지 활동을 유효적절하게 분담해서 수행할 수 있었다. 우선 이처럼 참가자가 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CIGRE 참가의 중요성 내지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된데 있다 하겠다. 사실 수천명의 관계 전문가가 모이는 국제대회에서 각 분야에 걸쳐 자기들의 연구성과와 운용실적들을 발표한다는 것처럼 그나라의 기술수준을 과시하는데 더 좋은 길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또 한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다른 여러나라에서는 과연 어느정도 우리를 인식하고 있겠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만도 못할텐데 변압기를, 전선을 수출하려고 한다고 느낄지 모른다. 이런 경우에 우리도 국제무대에서 CIGRE 大會에도 참가해서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고 한다면 최소한 전력기술면에서 더 이상 열을 올려 PR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對話의 찬널도 쉽게 열릴 것이라는 것이 이번에 참가

한 회원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였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大會에는 더 많은 會員의 참가가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 CIGRE의 性格과 構成을 본다면 前大會의 參席報告^{*註2}에서도 설명했듯이 大會는 公開討議형식으로 개최되는 各部會外에 각 部會단위의 作業部會 (Working Group : WG)가 있으며 이 WG는 이 作業部會에 소속된 研究委員 (member)들만 참가할 수 있는 이른바 非公開討議會인데 CIGRE의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은 바로 이 WG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 部會의 핵심기구인 이 WG 구성은 10~20명 정도의 研究委員들도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데 CIGRE에 참가해서 활동한다면 최소한 이 WG멤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참고로 이번에도 이웃 일본에서는 50여명이 참가했는데 정식 WG 멤버는 5~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가 CIGRE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研究論文을 많이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야에서의 WG 멤버로 참여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29回大會는 끝났지만 30回 大會가 2年後에 닥아올 것이며 論文 제출신청은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다.

CIGRE 國內委員會에서는 이번 大會에 참가해서 얻은 여러가지 성과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닥아올 30回 大會에는 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會員들의 참여와 협조하에 CIGRE 國內委員會가 충실화 되어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의 기반을 다질수 있게 되기를 빌어 마지않는 바이다.

(本報告書는 大會참가자 여러분의 참가보고를 기초로 해서 CIGRE 國內委 幹事가 정리한 것이다.)

*註2 : 第28回 CIGRE 大會 參席報告

大韓電氣學會誌 Vol. 29. No. 10 1980, 10.